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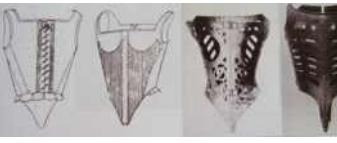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8.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경춘사

근세복식-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시대구분	르네상스
1. 시기	14세기말 ~ 16세기
2. 지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으로 전파
3. 기후	서인해양성기후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강수의 계절차가 고름
4. 생업	여름철 서늘한 기후와 겨울철 온난한 기후를 이용한 낙농업과 혼합농업 발달
5. 사회구조	절대왕제, 상승세를 타는 부르조아, 권세와 재력을 중요시 함
6. 의류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프 - 사. 마와 같은 얇은 소재, 레이스나 커트워크 활용 푸르푸앵 - 양피, 캔버스 (뺏뺏한 소재) 쇼쓰 - 모, 견, 면 등, 견사나 모편물을 귀중하게 사용 코르셋 - 고래수염 (곁감과 안감사이), 아마포 (뺏뺏함), 철사, 금속 언더슬리브 - 얇은 직물 베르튀가댕 - 풀을 먹인 마포, 등나무, 종려나무 줄기, 철사 등
7. 주요의복	<p>▶ 여자복식 - 속옷인 슈미즈, 코로피케, 베르튀가댕과 겉옷인 바디스와 스커트로 구성된 로브를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르피케 - 가슴과 허리를 강조,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한 조여 주는 옷 베르튀가댕 - 스커트 밑에 착용하는 종모양의 틀 <p>▶ 남자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르푸앵 - 남자들의 대표적인 상의, 앞여밈으로 단추를 사용한 꼭 맞는 형태이며 허리를 V자로 조임, 슬리브는 따로 제작하여 붙임 쇼쓰 - 오드 쇼쓰 (반바지) 와 바드쇼쓰 (양말)로 구성 특징 - 슬래시와 슬리브, 러프가 발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래시 - 속에 입은 쉬미즈가 보이게 하는 장식기법으로 겉감을 찢어 놓은 듯한 기법 러프 - 정교하게 주름을 잡은 흰색 칼라로 과장되고 극대화 됨
(러프)칼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프는 맞주름을 잡은 둥근 수레바퀴형 칼라로서 각 나라마다 러프형태에 차이가 있다. 러프 칼라의 형태는 원형, 하트형, 나비형, 부채살형 등 다양하였다. 주로 백색과 짙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슬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십자군 전쟁 때 군복의 칼자국에서 유래하였다. 남성복의 상, 하의에서 성행하였으나 여성복에서는 소매에서 주로 표현되었다. 처음에는 관절부위의 압박을 완화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점차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의복의 장식요소로 발전하였다.
여자복식	
(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여자복, (로브)를 영국에서는 가운(gown)이라고 하였다. 착용시에는 원피스 형태이나 구성상 투피스이다. 상체는 몸에 꼭 끼고 소매 폭은 좁아졌으며 바닥에 끌리던 스커트의 긴 길이는 바닥에 스칠 정도로 짧아졌으나 넓은 스커트 폭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속에 스커트 버팀대를 착용하였다. 로브의 소매는 주로 양다리형이 애용되었으며 장식적인 소매인 행잉 슬리브를 덧달기도 하였다.
(코르피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고 긴 띠를 몸에 감아서 조이던 코르셋의 초기 형태에서 조끼형태를 갖춘 (바스킨)과 (코르피케)가 고안되었다. (바스킨)은 두 겹의 리넨 천 사이에 바스크 즉 딱딱한 나무 조각, 고래수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앞이나 뒤 중심에서 끈으로 가슴, 배, 허리를 조여 입게되어 있다. (코르피케)는 바스킨보다 더 강하게 조이는 코르셋으로 두 겹 이상의 리넨 천 사이에 상아, 금속, 나무를 심으로 넣고 세로줄로 촘촘하게 누빈 것으로 점차 장식적인 품목이 되면서 겉감을 실크로 만든 것도 있었다.
(베르튀가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커트 버팀대인 베르튀가댕은 원추형과 원통형이 있다. 스커트는 초기에는 스페인식 스커트 버팀대인 (베르튀가댕)을 착용하여 원추형 실루엣을, 후기에는 프랑스식 스커트 버팀대인 (오스퀴)를 사용하여 원통형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남자복식

(푸르푸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시대 병사들이 갑옷 속에 입었던 푸르푸앵이 겉옷으로 발전된 상의이며 영국에서는 (더블릿)이라고 하였다. - 초기 (푸르푸앵)은 뒤여밈이며 목둘레 선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슈미즈의 러플이 보였으나 목둘레선이 높아지면서 좁은 스탠드칼라와 앞여밈으로 변경되었다. - 소매는 좁은 소매나 양다리형 소매였다.
오 드 쇼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말이 변형되어 바지 형태가 된 것을 프랑스에서는 (쇼스), 영국에서는 (호즈)라고 하였다. - 쇼스는 오 드 쇼스(반바지)와 바 드 쇼스(양말)로, 호즈는 브리치즈와 호즈로 나누어졌다.
(트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으며 패드를 넣어 등근 호박 처럼 부풀린 반바지 형태로 길이는 넓적다리 중간까지 달았다. - 움직임에 따라 좁고 길다란 주름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안감의 색상이 보이게 하였다.
(캐니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활동적인 반바지로 무릎 윗부분이 꼭 맞으며 장식적인 안감이 있었다.

(베니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전래된 (반바지)로 허리에 주름이 있어 윗부분은 풍성하고 무릎에서는 좁아지고 무릎 바로 아래에서는 단추나 끈으로 여민 형태이다. - 트루스나 베네상 아래에는 양말을 신었는데 초기에는 바지에 양말을 꿰매어 붙였으며 신축성 있는 직물로 바이어스 재단을 하여 다리에 밀착되도록 만들었다. 중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편직양말이 생산되었고 실크양말, 모직양말이 나타났다.
(저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푸앵) 위에 입었던 의복으로 푸르푸앵보다 길이가 길고, 소매가 있는 것도 있으나 주로 민소매였다. - 초기에는 칼라가 없었으며 목둘레는 많이 파인 V자형이나 U자형으로 속에 입은 푸르푸앵이 보였으며, 중반기에 좁은 스탠딩 칼라가 나타났다.
외투-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가 넓고 풍성한 (가운) 또는 (케이프)를 푸르푸앵이나 저킨 위에 착용하였다. - 르네상스 시대 복식 중 유일하게 슬래시 장식이 없는 의복이며 앞을 여미지 않고 벌어지게 입었으며, 넓은 칼라가 달려있다.
(슈미즈) -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루푸앵 안에 입는 (속옷)으로 영국에서는 셔츠라고 하며 흰색 린넨과 실크로 만든 언더 튜닉이 슈미즈로 변경되었다. - 초기에 푸르푸앵 안에 착용한 슈미즈가 많이 보이게 되면서 중요한 의복이 되었다. - 슈미즈는 폭이 넓고 손목과 목둘레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비숍 슬리브가 달려있다.

8.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문양보다는 주로 화려한 장식을 이용 진주, 보석, 황금색 스팽글, 깃털 등을 장식에 이용 자수를 많이 이용
9.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는 앞 중심에 가르마를 타고 앞 이마를 전체적으로 내놓고 뒷머리는 목덜미에 붙임 항상 모자를 착용 (보석이나 자수, 깃털로 장식) 초기 남자들의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뜨린 자연스런 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게 자르고 뒤로 넘김 (러프의 유행) 모자 (토크, 베레모) - 베레모의 소재는 벨벳이나 실크
10.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부리가 넓고 둥글며 굽이 없는 부드러운 구두 유행 앞부리가 4각으로 변화됨 (폭을 넓게 하여 과장시킴) 슬리퍼형의 굽이 높은 쇼핀, 굽이 낮은 펌프스, 패튼 (30cm 의 굽)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9. 바ロック시대의 복식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경춘사

근세복식-바로크시대의 복식

시대구분	바로크	
1. 시기	16세기 말~18세기 초 (1580년~1715년)	
2. 지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3.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로 온화하며 고른 강수	
4. 생업	기후의 영향을 받은 낙농업과 혼합농업이 주를 이룸	
5. 사회구조	왕을 중심으로 한 상류 인들의 호화로운 생활, 궁정 문화 중심사회	
6. 의류소재	견직물이나 모직물이 정부의 수입금지 정책으로 인해 다른 다양한 소재 이용	
7. 주요의복		
여자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에는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의 로브착용 후기에는 코르발레네가 다시 등장하고 목둘레선이 깊어지며 양다리 소매가 유행 스커트 앞부분을 가르고, 오버스커트를 뒤쪽으로 끌어올림 	<p>* 뜻 : 실내에서 입는 무를 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느슨한 (가운). 프랑스어로 드레스를 뜻하며, 보통 드레싱 가운 이라고도 부른다.</p> <p>*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C 초기 : 실루엣은 원추형과 원통형이 공존하였으며, 딱딱한 (코르피케)와 베팀대인 (베르튀가댕)이 사라지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로 변화 - 17C 중기 : 허리선이 내려가고 남자 복식처럼 루프, 리본, 레이스를 과대하게 장식하였다 - 17C 후기 : 허리선이 내려오면서 예각을 나타냈고 로브의 스커트 뒤쪽에 긴 트레인을 늘어뜨렸으며 스커트 자락을 뒤쪽으로 끌어올려
(로브)		<p>* 뜻 : 실내에서 입는 무를 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느슨한 (가운). 프랑스어로 드레스를 뜻하며, 보통 드레싱 가운 이라고도 부른다.</p> <p>*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C 초기 : 실루엣은 원추형과 원통형이 공존하였으며, 딱딱한 (코르피케)와 베팀대인 (베르튀가댕)이 사라지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로 변화 - 17C 중기 : 허리선이 내려가고 남자 복식처럼 루프, 리본, 레이스를 과대하게 장식하였다 - 17C 후기 : 허리선이 내려오면서 예각을 나타냈고 로브의 스커트 뒤쪽에 긴 트레인을 늘어뜨렸으며 스커트 자락을 뒤쪽으로 끌어올려

		버슬스타일이 등장했다
전반기 칼라의 형태		
후반기 칼라의 형태		
(푸르푸앵)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푸앵은 대표적인 남성상의였으나 여자도 착용했음을 볼 수 있다. - 1610년경 착용한 푸르푸앵은 둥그런 목둘레에 작은 (프릴)이. 폭좁은 소매 끝에는 폭넓은 (턴백커프스)가, 허리에는 (페플럼)이 달려있다 - 17세기 전반기에는 초기에 비해 허리선이 올라갔으며 소매 윗부분은 긴 슬래시 형태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코르발레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후반 귀족풍이 유행하면서 착용했으며, 고래 수염을 넣은 바디스라는 의미의 코르셋으로 프랑스에서는 (코르발레네). - 영국에서는 (스테이즈)라고 하였다. 풀 먹인 캔버스 천을 여러장 겹쳐서 0.5cm 정도의 좁은 간격으로 바느질을 하여 그곳에 고래수염을 넣어 만들었다.
외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브 위에 걸치는 외투로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오버드레스가 나타났다. - 앞을 여미지 않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로 소매 없이 윙만 달리거나, 긴 행잉 슬리브 또는 짧은 소매가 달린 것도 있었다.
남자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장식과 웅장한 이미지를 추구 • 푸르푸앵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스토코르-상체는 꼭 맞고 허리아래는 폭이 넓으며 넓은 커프스가 특징인 상의 • 러프가 간소화되어 폴링칼라와 휘스크칼라로 바뀜
(푸르푸앵) -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 : 주로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남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퀼팅으로 된 상의를 의미한다.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C 초기 : 초기에는 네덜란드 시민복에 영향을 주어 패드, 슬래시가 줄어든 실용적인 의복으로 변화 - 17C 중기 : 중기에는 허리선과 페플럼이 없어지고 옆선이 거의 직선화되어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이 되었으나, 길이가 차츰 짧아지면서 더 이상 바지와 연결해서 입지 않음
(쥐스토코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체에는 몸에 꼭 맞고 허리 아래는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영국에서는 (코트) 라고 하였다. - 초기에는 무릎길이에 칼라가 없는 둥근 목둘레의 직선적인 실루엣이었으나 귀족복으로 승격되면서 품위와 우아함을 상징하기 위해 허리를 가늘게 조임으로써 상체는 꼭 맞고 아랫단은 더 벌어지게 되었다.
(베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복으로 시작된 간단한 상의로서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용하여 쥐스토코르의 색상과 조화되는 화려한 색상과 금. 은 실을 넣어 짠 실크에 자수 장식도 하였다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크시대의 바지에는 (코드피스)가 없어진 것을 비롯하여 형태가 변화되었다. - 실용성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패드와 슬래시는 현저히 줄어들면서 풍성한 바지형태가 되었다.
외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의 형태와 색상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스페인식 외투는 옷길이가 짧고 후드가 있으며 네덜란드식 외투는 소매가 있고 풍성하게 넓은 형태였고, 프랑스의 맨틀은 칼라가 없는 것, - 세일러 칼라가 달린 것, 넓은 케이프칼라가 달린 것 등이 있었다.
8.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하는 문양 없이 많은 장식이나 문양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아하고 부드러운 꽃이나 꽃다발 모양의 장식
9.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발을 많이 이용함(가발의 형태는 앞가르마를 타서 자연스럽게 내려온 컬) • 여자는 긴 머리로 컬을 하여 앞부분을 부풀리거나 옆 부분을 부풀림(퐁탕즈) • 남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파마머리
10.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의 구두는 앞이 뾰족한 높은 힐, 오버슈즈인 패튼착용 • 남자구두는 커프스가 달린 무릎길이의 부츠, 실용적인 옥스퍼드 유행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10. 로코코시대의 복식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경춘사

근세복식-로코코시대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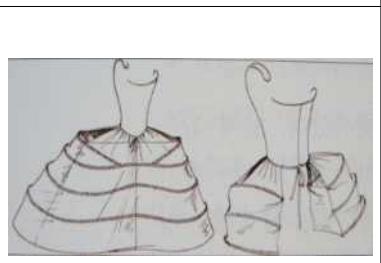
시대구분	
1. 시기	18세기
2. 지역	프랑스, 영국
3.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4. 생업	낙농업과 혼합농업
5. 사회구조	부르조아 계급 성장, 여성중심의 살롱 문화 발달, 여성들의 관능적이고 향락적 생활
6. 의류소재	태피터, 사틴, 다마스크와 실크로 된 레이스, 프린트 된 코튼
7. 주요의복	<p>▶여자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브 아 라 프랑세즈 - 파니에 두블르로 스커트가 양옆으로 퍼지고 뒤쪽에는 와토주름이 있는 로브, 리본 장식의 에쉘 스토마커와 앙가장트 장식의 소매가 달림 주름, 레이스, 리본 등의 작은 장식을 많이 함 목선이 많이 드러나며 부채가 악세사리로 등장 <p>▶남자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비 아 라 프랑세즈 - 쥐스토코르와 같으며 실크나 벨벳 등의 값비싼 직물에 금사로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것. 유럽의 궁중복 프락 아비에 - 복식의 간소화를 위해 스탠딩 칼라와 좁은 소매가 달린 실용적인 의복이며 궁중복으로 정해 짐 퀼로트 - 프랑스 상류계층에서 입은 몸에 붙는 바지.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고 바지 부리를 벼클이나 리본으로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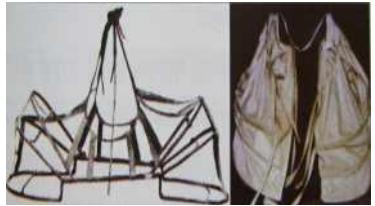
여자복식		
로브 (로브 볼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아가는 드레스"란 뜻이며 (로브 바탕트(robe battante)라고도 한다. 어깨에서 천이 아래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으며 뒷쪽의 풍성함을 넥라인에서 플리츠나 개더로 잡았다. 드레스의 아래는 원형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스타일이다. 점잖은 층에서는 목에 얇고 섬세하게 짠 실크나 울 스카프를 둘렀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중반의 여성복을 상징하는 드레스로, 프랑스풍 드레스란 뜻. 앞트임 형식의 중앙에서 장식적인 가슴바대와 언더 스커트가 보이고 있다. 몸통 부분은 몸에 꼭 맞고 두 개의 커다란 주름이 뒤로 흐르는 디자인이다. - (로브 볼랑트)의 변형으로서, 파니에 두블르가 애용됨에 따라 형태가 다소 복잡해진 것이다.
(로브 아 라 풀로네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풍) 드레스란 뜻. - 폴란드의 의장에서 힌트를 얻어 프랑스에서 패션화한 것이다. - 오버 스커트에 두 줄의 코드가 붙고 스커트의 단을 착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는 짜임으로 되어 있다. - 18세기 후반에 유행했다.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르카시아)풍의 로브란 뜻. - 18세기 후반 유럽의 여성이 착용하던 드레스의 일종. - 특히 동쪽 연안 시르카시아 지방의 소녀 의장에서 힌트를 얻어 프랑스에서 패션화한 것이다. - 오버 스커트의 부분에 3줄의 코드가 구성되어 그것을 걷어올려 입었다. - (로브 아 라 폴로네즈)와 흡사한데 홀쭉하고 긴 소매를 수반한다.
(로브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드레스의 일종으로 (영국풍) 드레스란 뜻.

랑글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뒤의 허리 라인에 낮게 파고든 솔기를 가졌고, 파니에 없이 개더로 스커트를 팽창하게 한 것을 말한다. - 로브 아 라 프랑세즈에 대비해서 간소한 스타일이 특색이다.
(로브 아 라 카라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이 16세기 말기에 등장했으며 영국 부인용 (승마복)에서 유래된 투피스형태이다. - 깊게 판 목둘레선에 러플 또는 스카프의 일종인 피슈 장식을 했으며 허리선에는 (페플럼)이 달려있어 힙 부분을 부풀린 롱스커트에 재킷을 결친 형태가 되었다. - 소매는 좁고 길거나 팔꿈치 길이에 앙가장트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슈미즈 아 라 렌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었던 흰 모슬린(muslin) 소재로 된 슈미즈 스타일의 로브(robe)를 말한다. - 조끼가 없고 가슴 아래에 예복의 일부로 몸에 두르는 띠인 새시(sash)를 맨다. 같은 종류로는 아 라 크레 올(à la créole, 식민지풍)이 있으며, 미국으로 이주한 프랑스인들이 착용했었다
(르댕고트) 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댕고트는 영어의 라이딩 코트 (riding coat) 가 프랑스어 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앞단추는 더블이며 넓은 라펠이 있고 허리는 가늘게 강조했으며 좁고 긴 소매가 달린 코트 드레스 이다.

	(만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 영국에서 등장했으며 주로 궁정에서 착용하였다. - 스커트 폭이 최대로 넓어졌으며, 허리선에서 스커트 단까지 직각으로 퍼지고 앞뒤는 납작한 형태이다. - 상체는 꼭 맞으며, (페플럼)이 달려 있어서 스커트 위에 타이트한 재킷을 착용한 형태이다.
	(버슬) 드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힙을 부풀린 (버슬) 드레스가 1785년 경에 등장하여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외 투	(플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트임이며 끈이나 단추로 위쪽만 여몄고 플랫 칼라와 어깨를 덮는 케이프가 달린 망토 스타일의 (외투)이다. - 안쪽 전체 또는 가장자리에만 모피를 댔으며 외투와 같은 모피로 (토시)를 끼었다.
	(펠레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 달린 망토 스타일로 힙을 덮거나 마루까지 닿는 길이도 있으며 안쪽 전체 또는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했으며 앞목에서 리본으로 맴고 손을 내놓을 수 있는 트임이 양쪽에 있었다.

<p>(코르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르셋은 길고 가는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기 위하여 착용한 것이다. - 코르셋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프랑스에서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달라 졌다. - 고딕시대에는 (코르사주), 르네상스시대에는 (바스킨) 또는 (코르피케), 17세기 후반기에는 (코르발레 네)라고 불렸으며 영국에서는 (스테이즈)라고 하였다.
<p>스토마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브의 앞 중심에 덧대는 역 삼각형의 장식물로서 로브와 연결하여 착용하였다 - (스토마커)는 스퀘어 네크라인으로 가슴노출이 심하여 슈미즈의 프릴이나 러플 또는 파틀릿으로 가슴 위 부분을 장식하였다. - 로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토마커의 곁을 화려한 보석, 자수 장식을 하였으나 로코코시대에는 꽃장식 또는 리본 매듭으로 연결되는 에쉘 스토마커를 가장 선호하였다.
<p>파니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는 '바구니'의 뜻인데,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허리받이 형식의 속치마로서, 영어의 후프와 거의 같은 뜻. 마치 등바구니를 스커트의 좌우에 넣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 여성들에게 이용되었던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철사나 고래수염, 등나무 등으로 테를 만들고 허리에 끈을 묶어 여미는 방식인데, 페티코트에 고래수염 등의 후프를 꿰매붙인 것도 많았다



남자복식



남자
복식

(쥐스토코르)



- 쥐스토코르는 프랑스어로 '몸에 꼭 맞는'이라는 의미로 웨이스트를 조인 실루엣이 특징이다.
- 초기에는 허리가 들어가고 아랫단이 퍼지는 X 자형 실루엣이다.
- 안에 입은 화려한 베스트를 보이기 위해 단추를 채우지 않고 열어 놓았으며, 소매는 좁고 끝에는 커프스가 달렸으며, 슈미즈의 레이스가 보였다.

		
(아비 아라 프랑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형 상의란 뜻으로 쥐스토코르가 18세기 중기 화려한 장식성이 강화되면서 형태는 같으나 실크나 벨벳 등 값비싼 직물에 금사로 수놓아 장식한 아비아라 프랑세즈로 변하였다. - 소재는 다양한 색상의 고급 실크로 포켓이나 앞단에 브레이드로 장식하는 등 화려하게 변화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의 궁중복으로 착용하였다.
(프락 아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서부터 유행된 (프락)을 변형시켜 프랑스에서 18세기 후반에 널리 착용하였으며 사치스럽고 불편한 아비 아라 프랑세즈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고 신사들이 말을 탈 때, 운동할 때 평상시 편안한 의복으로 애용하였으며, 서민과 노동자 계층에서는 헐렁한 형태의 작업복에 해당하였다. - 형태 : 앞 허리에서 단까지 사선으로 구성되었으며 뒷단에는 트임이 있어 활동에 편리하며, 좁은 스탠딩 칼라와 폭이 넓은 소매가 달려있어 기능적임

	 	
(르댕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댕고트)는 영어의 라이딩 코트 (riding coat) 가 프랑스어 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원래는 승마코트에서 나온 말이다. - 주로 상반신이 꼭 맞고 단퍼짐이 있는 여성 코트를 말하지만 웨이스트가 조여진 코트의 총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 형태 : 앞단에 단추가 있고 뒤 중앙에 슬릿을 넣어 활동하기에 편한 스타일이었고 더블 여밈에 큼직한 칼라와 라펠이 특징적이다 칼라는 두세겹으로 되어있으며 안쪽의 칼라만 세워 추위를 막았다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끼는 베스트와 질례로 나눌수 있다 - (베스트) : 푸르푸앵이 축소된 것으로 외출시 쥐스토코르 속에 착용하였다. 고급 실크나 모직물에 다양한 자수 장식을 하여 베스트를 보이게함으로써 화려함을 과시하던 의복이다 - (질례) :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이 특징으로, 허리길이에 허리위 양쪽에 포켓이 있으며 라운드나 솔 칼라가 많다. 앞판은 고급소재를 사용하고있고 뒤판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 질례는 서민으로부터 귀족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슈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에서 늘어뜨려 가슴과 배를 풍성하게 감싸는 허벅다리 길이의 여성용 속옷을 의미하며 18세기의 슈미즈는 가슴과 소매 끝, 목둘레선에 레이스 장식을 많이 하여 어느 세기보다 화려했다
외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에 끌릴 정도로 거대한 (플리스)와 망토 스타일의 (펠레린)이 있다. - 화려한 플리스는 귀족들이 권위와 사치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복으로 사용되었고 펠레린은 커다란 플랫칼라가 케이프처럼 달리고 양쪽의 슬릿으로 손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방한용 외투이다.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는 콜로트와 판탈롱이 있다 - (콜로트) : 바지 무릎까지의 길이이며 폭이 좁아 신체에 꼭 끼었으며, 바지 옆선에 서너 개의 단추가 달렸다. - (판탈롱) : 발목까지의 길이이며 폭이 넉넉하다 바이어스 재단으로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으며 단추 여밈 대신 영국의 영향을 받아 단추덮개인 (르퐁)을 개발함으로써 훨씬 기능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이 되었다
8. 문양	섬세한 꽃문양과 줄문양	

9.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모두 가발을 사용 여자의 가발은 헤드드레스로 쿠션을 넣어 과장시켜 높이가 70cm에 이르기도 함 머리에 밀가루를 뿐려 지혜롭게 보이게 함 남자 모자는 트리콘 햇이 유행
10.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는 매우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 남자는 앞부리가 네모난 구두를 착용 - 보석과 베클이 부착 됨 후기에는 굽이 낮은 (펌프스)가 유행

바로크 시대극에 나타난 영화의상의 조형적 특징

김주애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그림	특징
Fig. 1 <삼총사>		16세기를 지배했던 스페인 모드가 계속 유행하여, 초기 10년간은 더블렛의 형태 변화가 거의 없어 트렁크 호즈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신발과는 달리 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였다.
Fig. 2 <삼총사>		남성복 특징인 피스코드 벨리와 러프 칼라는 사라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뉜 페플럼, 허리부분에 여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슬래쉬 장식이 남아 있지만 16세기 이전보다 여유 있고 길어진 브리치즈를 착용하였다.

Fig. 3 <사총사>		<p>더블릿의 옷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선에 연결된 여러 조각으로 된 스커트부분은 반대로 길어지고, 폴링 칼라와 휘스크 칼라가 같은 시기에 함께 이용되었다. 슬래쉬가 더블릿에 유지되고, 러프칼라가 폴링칼라로 변화되었다.</p> <p>권위적인 모습 → 단순하고 편안</p>
Fig. 4 <사총사>		<p>슬래쉬가 유지되었지만, 이전의 패드로 과장된 남자 차림에서 간편한 모습으로 바로크 시대 전형적인 초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p>
Fig. 5 <삼총사>		<p>16세기 복식 특징인 러프 칼라와 17세기 초기 복식의 특징인 밑이 둥근 스토마커를 착용하여 세기 과도기의 혼합된 복식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p>

<p>Fig. 6 <삼총사></p>		<p>휘스크와 둉근 스토마커로 구성된 로브를 착용하여, 바로크시대 초기 여성복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p>
<p>Fig. 7 <사총사></p>		<p>16세기에 엉덩이가 강조된 형태를 위해 사용되던 룰파딩게일을 착용하여 두 세기의 혼합된 복식을 나타내고 있다.</p>
<p>Fig. 8 <사총사></p>		<p>흰 풀링 칼라와 커프스로 구성된 로브로 초기 복식을 잘 표현하였다.</p>

<p>Fig. 9 <사총사></p>		<p>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목둘레는 V형, U형으로 깊게 파이고, 하이 웨스트로 높게 나타내게 되었다. 16세기의 뾰족한 스토마커 대신 밑이 둥근 스토마커, 어깨선에서 약간 내려 온 드롭 숄더에 동일한 소태로 칼라와 커프스, 헬루벌루 머리스타일 등으로 17세기 초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p>
<p>Fig. 10 <사총사></p>		<p>16세기 후기의 지나친 화려함과 인체의 과장이 사라졌으며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비교적 소박한 형태를 특징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의 로브를 착용하였다.</p>
<p>Fig. 11 <레스터 레이션></p>		<p>무늬없는 흰 린넨의 폴링 밴드형 칼라에 검정색 의상과 모체가 높고 둥글며, 뺏뻣한 차양의 모 자를 착용한 수수한 모습이다.</p>
<p>Fig. 12 <아이언 마스크></p>		<p>이전의 화려한 레이스 칼라 대신 흰 폴링칼라에 짙은색 의상을 착용하여 바로크시대 중기에 정교도인의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p>

<p>Fig. 13 <레스터 레이션></p>		<p>바로크시대 중기에 특한 남자 복식의 더블릿과 바지의 형태에 큰 변화로 나타난 로쉐, 혈랑한 브리치즈, 크라바트 등 새로운 품목을 착용하고 있다.</p>
<p>Fig. 14 <레스터 레이션></p>		<p>화려한 색과 루프다발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시대 중기 복식을 잘 표현하였다. 화려하게 꽃 모양으로 장식되고 굽이 달린 구두를 착용하고 있다. 초기에 비해 남성의 머리가 길어졌고 브리치즈는 혈령하고 편해졌다.</p>
<p>Fig. 15 <레스터 레이션></p>		<p>마리벨이 매우 짧아진 더블릿과 겉옷이 짧아짐에 따라 많이 노출된 셔츠, 랭그라브와 캐논, 부츠 등을 착용하여 루이 14세의 바로크 취향으로 생성된 화려한 색감이 잘 표현되었다.</p>

<p>Fig. 16 <아이언 마스크></p>		<p>루이 14세의 루프다발, 크라바트, 길어진 머리 등으로 약동적인 복식의 특징이 잘 부각되었다.</p>
<p>Fig. 17 <아이언 마스크></p>		<p>크라바트, 브레이드 여밈 장식으로 된 브란덴부르크 등으로 바로크시대의 중기 복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수한 청교도인의 복장과 바로크시대 중기의 독특한 바로크양식이 함께 융합되어 섬행하였다.</p>
<p>Fig. 18 <레스터 레이션></p>		<p>어두운 의상위에 흰 린넨으로 된 긴 에이프런을 착용하여 흰색 린넨 칼라나 커프스와 조화를 이루며,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검소한 여성복 차림을 하고 있다.</p>

<p>Fig. 19 <아이언 마스크></p>		<p>바로크시대 초기의 둑근 스토마커에서 변화되어 다시 뾰족한 형태의 스토마커에 둑근 바토우 네크라인으로 구성된 로브로 바로크시대 중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p>
<p>Fig. 20 <아이언 마스크></p>		<p>왕비의 로브는 코르셋으로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린 형태에 금사로 자수된 로브로 바로크 예술양식의 화려한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성복도 남성복과 마찬가지로 수수한 청교도 영향을 받은 특징과 화려한 바로크양식이 적용된 의상이 함께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p>Fig. 21 <레스터 레이션></p>		<p>드롭 솔더 스타일의 깊이 파인 목선으로 된 로브를 착용하여 바로크 시대 중기 복식 특징을 잘 나타내었고, 얼굴 양 옆으로 볼륨 있게 부풀리거나 길게 늘어뜨린 중기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p>

<p>Fig. 22 <레스터 레이션></p>		
<p>Fig. 23 <왕의 춤></p>		<p>17세기 말기인 1680년부터 더블릿이 짧아져서 조끼형태로 변하고 성행하게 된 쥐스토코르를 착용한 모습이다.</p>
<p>Fig. 24 <왕의 춤></p>		<p>화려한 리본장식 외에 남성의 쥐스토코르와 거대한 가발로 바ロック양식의 화려함이 절정에 다른 남성 복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p>

<p>Fig. 25 <왕의 춤></p>		<p>상체는 꼭 맞고 아래는 폭이 넓으며, 넓은 커프스가 특징인 쥐스토코르를 착용하고 있다.</p>
<p>Fig. 26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p>		<p>바로크시대 후기에 유행한 거대한 가발, 긴 웨이스트코트, 넓은 커프스로 접어 올린 아래가 뻣뻣하게 뻗치는 쥐스토코르에 긴 지팡이,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은 심플한 구두로 전형적인 말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7세기 말기로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곁치장에만 열중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p>
<p>Fig. 27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p>		<p>화장한 얼굴에 패치를 붙인 남자 모습에서 바로크시대 말기의 장식 요소를 잘 표현하였다.</p>

<p>Fig. 28 <왕의 춤></p>		<p>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구두를 착용하여 바ロック시대 말기의 특징을 나타내었다.</p>
<p>Fig. 29 <왕의 춤></p>		<p>검은 색 로브에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된 풍탕주를 착용하여 말기의 특징을 나타내었다.</p>
<p>Fig. 30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p>		<p>많은 플라운스 장식으로 된 버슬 스타일의 로브, 레이스 장식의 풍탕주, 부채를 착용하여 바ロック시대 말기의 복식 특징이 극대화되어 나타났다.</p>

<p>Fig. 31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p>		<p>여성의 풍탕주, 붉은 리본장식 등으로 더욱 화려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었다.</p>
<p>Fig. 32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p>		<p>로브의 스커트 자락을 뒤로 보내면서 노출된 언더스커트에 여러 층의 플라운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었다.</p>
<p>Table 1</p>	<p>- 각 시기별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복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p>	

시기	사회·문화적 영향	영화 타이틀	복식 특징
바로크 초기	-16세기 복식 특징 유지 -30년전쟁 영향 : 네덜란드풍의 자연스러운 복식	사총사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스크 칼라 • 볼 파딩 케일 • 둥근 스토마커 • 남성의 짧은 머리
		삼총사 3D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런 형태의 브리치즈 • 장미꽃 장식 구두 • 부츠
바로크 중기	-청교도 혁명 -바로크양식 성행 : 약동적인 복식	레스터레이션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 린넨 폴링 밴드 • 어두운 색 • 로쉐, 투프 다발 • 랭그라브, 캐논 • 노출된 셔츠
바로크 말기	-바로크양식의 극단적 양상	왕의 춤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스토코르 • 리본장식, 크라바트 • 풍탕주, 뷔이힐
	: 과도하고 극단적인 양식성	영국식 정원의 살인사건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스토코르 • 베슬스타일 • 풍탕주, 거대한 가발

Table2

바로크 시대의 시기별 남자복식의 조형적 특징

	시기	17세기 초기	17세기 중기	17세기 말기	
	아이템	더블릿, 페플럼, 슬래쉬된 트렁크 호스, 슬래쉬된 브리치즈, 케이프, 저킨	로쉐, 노출된 셔츠, 랭그라브, 헐렁한 브리치즈, 브란덴부르그, 캐속, 캐논, 밸드릭	넓은 커프스의 쥐스토코르, 웨이스트-코트, 무릎길이 웰로트, 비숍소매 셔츠	
	출처	 	 	 	
	형태	카발리에 스타일, 단순한 형태	허리를 강조하지 않은 H자형 실루엣	하의가 플레이진 S자형 실루엣	
	출처	 	 	 	
	색채	금색, 은색, 푸른색, 보라색, 검정색	적색, 보라색, 자색, 금색, 아이보리색, 검정색	금색, 빨간색, 분홍색, 무채색	
	출처	 	 	 	
	소재	실크, 세틴, 가죽	린넨, 모, 세틴, 실크, 펠트, 모피, 레이스	실크, 세틴, 레이스	
Table3	바로크시대의 시기별 여자복식의 조형적 특징				

	시기	17세기 초기		17세기 중기		17세기 말기	
아이템	러프칼라, 휘스크의 로브, 퍼프소매, 밀이 통근 스토마커, 블 퍼딩케일		뾰족해진 스토마커, 로브		예각 스토마커, 양가장트, 파고다 소매의 로브		
	 	 	 	 			
출처	사종사	삼종사	레스터레이션	아이언 마스크	왕의 춤	영국식 정원의 실인사건	
형태	하이웨이스트의 자연스러운 형태		칠부소매, 바토우 네크라인, 낮은 허리선의 로브		깊이 파인 목선의 베슬실루엣		
		 		 	 		
출처	사종사	삼종사	레스터레이션	아이언 마스크	왕의 춤	영국식 정원의 실인사건	
색채	산호색, 은색, 적색, 초록색, 파란색		적색, 금색, 은색, 노란색, 황토색, 파란색 등		노란색, 적색, 살구색, 아이보리색, 투채색		
	 	 	 	 			
출처	사종사	삼종사	레스터레이션	아이언 마스크	왕의 춤	영국식 정원의 실인사건	
소재	실크, 레이스, 세틴, 린넨		린넨, 실크, 벨벳, 세틴		실크, 레이스, 린넨		
	 	 	 	 			
출처	사종사	삼종사	레스터레이션	아이언 마스크	왕의 춤	영국식 정원의 실인사건	

<영화 '천일의 앤' 의상에 관한 연구>

영화 '천일의 앤'은 헨리 8세 시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16세기 영국 의복의 특징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특징
 헨리8세의 초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직의 소재에 세이블 장식을 한 코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금직과 자주색으로 구성된 푸르푸앵은 술래쉬 장식이 있어 안에 입은 슈미즈가 보이도록 구성 트렁크 호스는 금직 사이에 자주색 헝겊의 밴드로 구성하여 움직임에 따라 사이가 벌어지면서 율동감을 나타냄
 무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도회에서 착용한 의상으로 녹색의 벨벳 코트의 소매부분을 움직임에 따라 벌어지면서 율동감을 나타나도록 함 코트의 칼라는 명도대비가 강한 색상을 이용하여 공간분리효과를 나타냄



결혼식 후 행진

- 혼배성사 후 시가행진을 할 때의 모습으로 난색 계통의 푸르푸앵과 흰색의 푸르푸앵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감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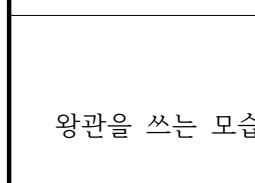
결혼 전 무도회

- 네크라인에 보석장식이 있는 베이지 계열의 문양이 있는 실크로브를 착용



수장령 후 무도회

- 여러 가지 장식이 증가(머리에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으며 네크라인에도 많은 보석장식)



왕관을 쓰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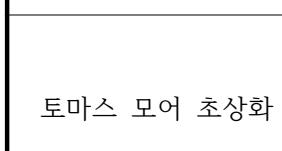
- 소매에 금직으로 짠 직물을 사용하였고 중간부분에 많은 진주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 1계층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의상
- 명도가 높은 흰색의 금직을 사용



캐서린의 초상화



토마스 크롬웰
초상화



토마스 모어 초상화

- 자주색의 벨벳에 로브의 소매 부분은 금직으로 짜여진 직물로 구성되어 있고, 커다란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하고 있어, 제 1계층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

- 세이블 장식이 있는 코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 3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식

- 그림 속의 토마스 모어는 5계층이상에서만 착용할 수 있는 심홍색의 벨벳코트와 보석장식이 되어있는 커다란 체인장식을 하고 있으며, 제3 계층에서만 장식할 수 있는 세이블을 착용

